

보성 붓재 그린다향·그린마켓 역대 최대 매출 달성

지난달 기준 매출 4억 원 돌파... 방문객 7만7465명 기록

보성군은 11월 말 기준 붓재 그린다향과 그린마켓에서 4억 14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7만7465명의 누적 방문객 수를 기록하는 등 가장 이래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90%, 방문객은 93% 증가한 결과다. 또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 전체와 비교하면 매출은 34%, 방문객은 83% 증가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을 넘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보성다향대축제, 보성차밭 빛축제, 보성세계차엑스포 등 굵직한 행사들이 개최되지 않거나, 언택트 형식으로 치러진 상황 속에서 이뤄낸 결과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보성군은 붓재의 활성화를 위해 그린다향에 빈백(Bean Bag) 소파를 도입하고, 휴가 시즌 동안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또한 방문객의 성별, 연령별 기호 분석을 통해 녹차팥빙수, 그

등도 매출과 방문객 증가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문화의 소비를 통해 삶의 만족도와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트렌드인 시대"라며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붓재, 다향아트밸리, 한국차박물관과 해수욕장센터를 연계해 보성의 역사와 차 문화, 차 산업을 널리 알리는 복합 문화관광지구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붓재'는 연면적 49,430㎡ 규모로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에는 삼국시대부터 오늘날의 보성이 있기까지 유구한 보성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보성역사문화관이, 2층에는 티 하우스(Tea House) 카페 그린다향과 차 관련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특산품 판매장 그린마켓이 입점해 있다.

/보성=장국도 기자

곡성,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내년부터 시행... 복지사각지대 해소 앞장

곡성군이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감면 정책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질적인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 가구이며 감면액은 월 사용요금의 50%다.

대상자들은 수급자 증명서를 가

지고 곡성군 상하수도사업소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요금 혜택은 접수한 날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다자녀가 구 수도 요금 감면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곡성군 관계자는 "기초 생활수급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이상석 기자

구례, 연말연시 모금활동 홍보 집중

김순호 군수, 적극적인 어려운 이웃돕기 참여 독려

구례군이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모금 독려에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김순호 군수는 5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023 희망나눔캠페인 및 적십자회비 모금 등 적극적인 이웃돕기 참여를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군수는 적극적인 이웃 돕기를 포함하여 상수도 등 생활민원 불편함이 없도록 겨울 한파 대비, 연말 공직가장 확립,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 점검 철저 등 꼼꼼한 현안업무 수행을 주문했다.

구례군은 지역 내 나눔·기부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모금활동을 적극 독려하고 이를 통해 모여진 성금은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쓸 계획이다.

먼저 희망2023 나눔캠페인 성금 모금을 통해 구례 군민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2023년 모금 목표액은 작년 2억 1000여만 원에서 10% 상향된 2억 3천여만 원으로 2023년 1월 31일까지 모금을 진행한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연중 추진하며 2023년 1월 31일까지 집중모금 기간이다. 목표액 3900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 세대주 1인당 1만 원을 고지하여 모금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구례군은 성공적인 모금활동을 위해 유관기관·단체별, 마을 단위 모금을 추진하고, 읍면 LED 전광판 게시 및 이장회의·기관단체 회의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나간다.

/구례=오광범 기자

광양, 공간정보 연구과제 발표대회 '대상'

'광양 통합 트래킹 정보구축·데이터 개방' 주제 발표

광양시는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2022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연구과제 발표대회' 공간정보 분야에서 대상을 받아 7년 연속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2일 영암군 현대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발표대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대학교수, 전라남도·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평가로 선정됐다. 2개 분야(공간정보, 도로명주소)에 대한 연구과제 발표와 특강 등을 통해 도내 시·군 간 정보 교류와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전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에서 제출한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1차 서

면 평가를 진행한 후 우수 3개 시·군을 선정해 현장 발표대회를 진행했다.

시는 '광양 통합 트래킹 정보구축 및 데이터 개방'이란 주제로 정부의 디지털 뉴딜정책에 맞춰 트래킹 정보구축과, 가치 있는 공간정보 데이터를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해 대상을 수상했다.

이용진 정보통신과장은 "내년에도 공간정보시스템 정비를 통해 더 정확하고 유용한 최신 공간정보 제공과 행정 편의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조준익 기자

광양, 착한가격업소에 '광양사랑상품권 40만 원' 지급

저렴한 가격·친절한 서비스 제공... 물가 안정 이바지

광양시는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이바지한 착한가격업소에 '광양사랑상품권 40만 원'을 지급한다.

착한가격업소는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대신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

시는 올해 4월 22일, 시 홈페이지 공지글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신청·접수를 받았고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등의 기준으로 심사해 8월 1일 46개소를 선정하고 착한가격업소의 인

센티브 지원을 위해 2022년 11월 23일 제4회 추경예산에 94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총 1,840만 원(도비 포함)을 지원한다.

광양 사랑상품권 지급은 오는 12~16일 시청 지역경제과 사무실에서 지급하며, 대상자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수령하면 된다.

금년에 선정된 착한가격업소는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인증서와 인증표찰, 기자재 구입비 보조 등의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시설 개선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보증 우선 지원, 시

홈페이지나 SNS 홍보 등을 통해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정용균 지역경제과장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합리적인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힘을 보탠 착한가격업소 대표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저가 메뉴 개발, 착한 가격, 시민 이용 만족도, 위생·청결 등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확대와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2021년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인증서와 표찰,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광양사랑상품권 5만 원을 지급했다.

/광양=조준익 기자

순천 민선8기 첫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선언 2건 채택

'근로자가 안전한 일류순천'·'순천형 일자리 모델 실현'

순천시가 지난 5일 순천상공회의소 컨벤션장에서 '2022년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노관규 순천시장과 노동계, 경영자단체, 시민단체 등 노사민정협의회 위원과 실무협의회 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2022년 주요성과 보고, 근로자가 안전한 일류 순천 만들기, 순천형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2건의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노사민정이 함께 채택한 '근로자가 안전한 일류 순천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에는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 ▲안전한 일자리 문화정착 ▲안전한 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산업재해 제로(ZERO)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순천형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에는 ▲정주도시

가 될 수 있도록 적정 사회적 임금의 실현 ▲마그네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내부 상생협약 단가 구현 ▲마그네슘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동시설 확보, 공동인력양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경제 여건 악화와 급격한 노동환경의 변화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노사민정이 힘을 합쳐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일류 순천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순천=조준익 기자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판타지' 마술쇼 운영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에서는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주말 이벤트 '온종일 판타지' 마술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차마을에서는 '달달 이벤트'를 통해 어린이 관광객을 위한 마술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연말을 맞아 기차마을 내 생태학습관 중앙 로비에서 '하루 종일 선물처럼 만나는 마술'이라는 콘셉트로 하루 3회 마술 공연을 진행한다. 오전 11시에는 풍선 마술, 오후 2시에는 마술쇼, 4시에는 풍선쇼를 관람할 수 있다.

모든 공연은 관객 참여형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마술쇼 관람 후에는 샌드 크래프트, 라이브 스케치, 로봇 바리스타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에서는 겨울철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시즌 분위기를 살릴 크리스마스 포토존을 곳곳에 조성했다.

또한, 12월 한 달 동안 '기차마을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한다.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 리스&트리 만들기, 동화책 읽고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등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곡성=이상석 기자



한 적 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

집나가면 '가시'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곡성여행

검색

2018년 곡성군 시민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